


공동체 소식



**부활 제5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 **감영진 라파엘, 감춘희 라파엘라 가정**
- + **차호섭 요셉, 차선운 마리아 가정**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총구역회 모임

- 일시: 오늘 교중미사 후(4.24) 미사 후.

유아세례 안내

- 시간 : 4.30(토) 12:00
- 장소 : 성당
- 안내 : 대상자들은 대부모와 동행하며, 출생증명, 세례감사예물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비의 대희년 기도모임' 안내

- 시간: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 3시.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병원방문 시 통역 도움 받으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통역지원자: 조지연 마리아 (913-948-2925)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부활 감사송5 <사제요 제물이신 그리스도> 중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34	221	165	13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문호진 안토니오
	이원준 요한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정예찬 미카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박희영 카타리나 김소라 요안나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차주	문문주, 최은미, 박옥희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4/17	68명	410불	1,500불
유영운, 김태중, 김화년, 정석원, 정지현, 김대연, 정준구, 차호섭, 정수한 (총 9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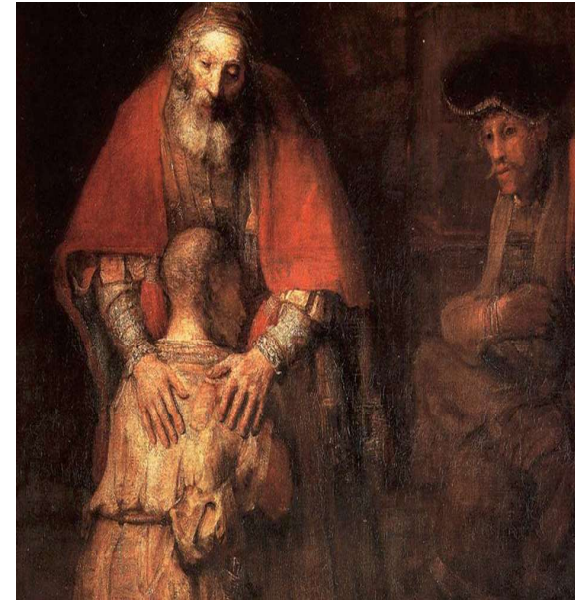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사도들의 선교 활동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보여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처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 성화해설

#### 돌아온 탕자(렘브란트 1669, Oil on canvas)

탕자의 비유(루카 15.11-32)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잘못을 묻지 않고 아무말 없이 그저 꼭 안아줄 뿐입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의 어깨에 얹은 손을 한쪽은 어머니의 손으로, 또 한쪽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넣음으로써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기다리던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4,21-27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하였다.>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5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31-33 34-35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 쉐 마

##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성경 원문을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그리스어가 가장 간결하며 읽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렇게 간결한 요한복음이 이해하기에는 가장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언어의 마술사 같습니다. 간결한 문장 속에 오묘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복음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느님께서 뎀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면서 바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영광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진다는 말은 아버지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곧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영광스럽게 될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진다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가 영광스러워지면, 예수님 자신도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워지셨는데, 또 영광스러워진다니 무슨 말입니까?

요한 17,4-5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 땅에서 아버지의 계획을 완수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 창조 전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께서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써 당신도 이미 영광스러워지셨지만, 그 영광이 온전히 되돌려지는 것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재림 때까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15,8; 17,1.10; 21,19)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날 때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5,8)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사랑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미 하느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바오로에게 세례를 준 하나니아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열심한 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울에게 세례를 준 것입니다. 타르수스 출신의 열성파 유대인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의회로부터 부름을 받아 어떤 일을 맡게 되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9,1-2

사울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소문이 다마스쿠스 온 지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울의 악명을 익히 들었던 터라 그곳에 사는 신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번쩍입니다. 그는 무서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어떤 대답이 들려왔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9,3-6

사울은 이제껏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체험을 하고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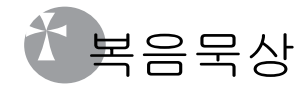
만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다마스쿠스 시내에 살고 있던 하나니아스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영상으로 나타나 하나니아스에게 무엇이냐고 이야기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9,7-22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하나니아스는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의심과 의혹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니아스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오로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니아스처럼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습니다.”라는 자세를 늘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이치

사과를 심어야  
사과가 나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난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 임의준 신부